

어린 나귀를 타신 왕 예수

(요 12:12-19)

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꿈에 사로잡힙니다. 그러나 수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.

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 오셨는지에 관한 영적인 의미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 오셨습니까?

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.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.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.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.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입니다.

두 번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 역시 겸손하고 온유한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속9:9은 특히 나귀 새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두 제자들이 어미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.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해 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함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.

세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심은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.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 가신 이유는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입니다.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.

오늘 여기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?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죄와 죽음 그리고 죄책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